

연설 2: Andrey Seas

먼저 제 친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타조의 이름은 타로입니다. 이 타조는 제가 서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카페에서 만난 친근한 아기 타조입니다. 아주 귀엽지 않습니까?

타로와 제 자신에 대해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로와 저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 사진에서 보이듯이 우리 둘 다 셀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둘 다 사람을 좋아합니다. 남들처럼 타로는 전혀 부끄러움을 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둘 다 장난 꾸러기이고 매우 호기심이 강합니다.

하지만 저와 타로의 명백하고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인간이고 타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동물이 제가 앞에서 언급한 장난스러움이나 호기심이 있으면, 동물들은 인간이 될 수 없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탐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가' 입니다. 이 질문에는 답하기 위해서는 비록 다양한 각도가 있지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제 인생에서 무엇이 큰 영향을 주었 나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인간의 경험이 특별하게 정의되는 방법이 편안함과 친숙함, 그리고 공포 대 사랑의 불확실성 사이의 끊임 없는 투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에의 궁극적인 행위가 장기적으로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 삶을 식별하고 사는 것도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의 단기적이고 일상적인 의사 결정과 함께 말하고 싶습니다.

널리 알려진 작가 파올로 칼루호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인생은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가는 긴 여행이다."

그래서, 이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서, 저는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겁니다: "이 외국인이 어떻게 한국에서 동물과 셀카를 찍고 왜 무엇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있을까?"

음... 제가 사랑을 선택한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날은 제 삶의 궤적을 완전히 바꿨던 날이지만, 말 그대로 사랑을 선택한 날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그날, 제 아내와 저는 서울에 계시는 그녀의 부모님을 방문하기 위해서 LA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 빼고 모든 가족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서 제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지난 2년의 인생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2년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중환자실에서 30일 간 입원을 하였지만 다행이도 회복을 하셨습니다. 저는 편안한 일을 떠나, 첫 진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에서 법학과를 졸업하고 저의 계획은 사법 시험을 보고 세무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울증과 불안감과 같은 정신적인 붕괴로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이 최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의 산업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산업을 챙길 수 있는 충분함이나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제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공황을 처음 겪어서 심장 마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를 응급실로 급히 데려다 주었고 의사들이 공황 발작일 뿐이라며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꿈쩍 할 수 없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제 길에 너무 헌신적인 것 같아서 바꿀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중요한 건, 아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그것만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서 이 모든 것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살던 방식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무언가가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저는 저한테 좀 더 흥미롭고 제 가치에 부합한 많은 길들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마케팅과 코치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더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제 직업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배워야 할 기술을 배우고 그냥 하는 것이었습니다. 핑계 없이 저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내리자마자, 에너지의 급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몸이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단지 결정에서 왔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모든 것이 햇빛과 무지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알아내야 하는 것들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의 아내와 가족은 저의

결정을 지지를 해주었지만, 저는 아직 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그 결정으로 저는 온라인에서 사업을 하고, 저는 LA와 한국에서 제 아내와 같이 살 수 있고 아무데서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되어서 축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왜 한국일까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한국을 사랑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은 놀랍습니다. 타로와 같은 동물들과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동물카페도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KPOP... KPOP에 대해서 시작 하지도 않겠습니다. 기분이 우울할 땐, 블랙핑크 노래를 들으면 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트와이스의 “Likey”입니다. 그 노래를 아시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셀카를 찍고 귀엽게 보이는게 아주 매력적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Andrey 씨,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인간적인 경험에 좋은 것이지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이 나의 인간적인 경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두려움’ 과 ‘사랑’ 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같은 페이지에 있을 수 있도록 ‘두려움’ 과 ‘사랑’ 에 정의를 같이 봅시다.

제가 말하는 이 ‘사랑’ 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당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소년이나 소녀를 볼 때 따뜻하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느낌일까요?

그것은 이런 맥락에 사랑의 정의는 아닙니다. 사랑은 사회에 상관없이 다른 이들이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남들에게 직접적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두려움을 꼭 무서운 것에 대해서 말하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 아내는 귀신을 무서워하고, 그 귀신은 길고 검은 머리가 있고 백색복을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왜 무서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말해주세요. 이것은 한국사람들만 아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런 맥락에서 두려움은 우리의 기본적인 설정이고 우리들의 내적 진리를 말하는 데에 안전을 향한 편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취한 마음을 가질 때 느끼는 저항감입니다. 일반적인 표현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용어를 정의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서 결정을 할 때 큰 그림인 공상적 사고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자면, 어떤 결정이든, 작든 크든 간에, 당신이 옳은 결정을 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다시 뒤돌아 보았을 때 ‘그런 결정을 내려서 아주 기쁘다’ 라는 결정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떠오르는 것 일수도 있습니다.

생각 하셨나요? 좋습니다.

이제 두려움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인간의 투쟁의 틀을 이용해 분석해 봅시다.

예를들어, 제가 선택한 결정은 주로 제가 자주 볼 때 일어납니다. 저는 한국의 커피숍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라떼나 차를 주문해야 하나에 대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커피는 맛이 있지만, 차는 멍멍하고 몸에 좋습니다. 요즘은 항상 차를 골라서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제가 추구한 사랑은 무엇이이었을까요? 무슨 걱정들을 피해 갔을까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한 자기애를 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맛있는 것을 마시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건강을 돌보는 것에 대한 이득을 받는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떼를 선택하고 이런 말을 말할지도 모릅니다. “음, 어차피 다이어트를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라떼를 즐기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다이어트를 끝까지 하지 않았다는 실망을 느끼기 싫어서 애초부터 다이어트를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결국엔, 실패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주의 깊게 분석하면 당신의 결정에도 같은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 여정을 인식하고 있고, 우리의 의사 결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랑에 대해 절대적으로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몇가지의 실용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물어 봐줘서 기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여행을 하는데 도움이 된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말함으로써 제가 제 자신이 회의에 참석하고, 많은 책을 읽고, 코치들과 만나고, 최고의 선생님 들을 만나고, 많은 실수들을 다 포함한 제 자신의 개인적인 개발에 투자한 수 천시간에 이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공명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따르면, 제가 생각하기에 자기 인식을 이루고 사랑을 추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공을 정의합시다. 네가 자라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당신 자신으로서 어떻게 느낍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의 사이에서 지내고 싶습니까? 어떤 영향을 남기고 싶습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당신은 끝에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지금으로 되돌아 보면, 무엇을 이루고 싶었나요? 죽음을 빨리 받아들일수록, 더 힘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데에 쓰이는 좋은 압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명확성은 힘입니다. 목표가 없다면, 당신은 목표를 위한 에너지와 노력에 대해 집중을 안하고 너 무 흩어져서 전진하지 못할 것 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이고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아 인식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향해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에워싸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결코 배우지 못한 한가지는 우리는 같은 사람들과 다니면서 평균적인 사람이 됩니다. 주로 당신과 가장 가까운 5명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생각이나, 습관, 사고 방식, 가치관, 그리고 그 사람의 관한 모든 것을 닮아 갈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두려워하고 그들이 취할 필요가 있지만 취하지 않는 사람들과 있으면 똑같이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2년 넘게, 일주일에 한 시간씩 나에게 영감을 주고 내가 최고가 되는 데 도전하게 하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 것은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 도와주었고 제가 모르고 있던 능력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자기대화 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과거에 겪은 실수나 투쟁으로 인한 많은 죄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속이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실수를 하면 자신을 혼내거나 낮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성공하는 과정에 매우 해로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장 많이 연관 지은 5명의 평균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을 의심하고 있고, 스스로에게 유독하고, 실수할 때 자신을 엄하게

대하면, 어떻게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편안한 공간에서 나와 사랑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저를 도와 주는 팁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친한 친구처럼 3인칭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되, 실수를 하면 부드럽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친한 친구에게 불친절 하지 않으면 왜 자신에게 불친절 해야 됩니까? 나쁜 생각을 하는 유혹을 이겨 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그걸 하고 있는 걸 발견한다면, 저도 가끔 그러지만, 그런 생각들을 이겨내고 긍정적인 생각과 자기대화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 후회는 안 할겁니다.

마지막으로, 무모하지 않게 자신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둘다 균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이 대화는 목적없이 꿈을 쫓고 상식을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를 향해 걸음마를 걸어도 사랑을 위해 목표를 세우는데 목적입니다.

일단 움직이면, 여러분은 추진력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진전을 보이면 당신의 의도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자신에게 증명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행 도중에 목적지가 아닌 행복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속도가 아닌 방향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의 미래가 당신의 발전처럼 좋아 보인다면, 당신은 계속 나아가고 싶은 동기와 의지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성취감을 느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것을 느끼기 바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은 가난에서 부자로, 아니면 부자에서 가난으로, 아니면 교육 받지 못한 사람이 교육받는 순례가 아닙니다. 인생은 공포에서 사랑으로의 순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달을 수록, 우리는 더 빨리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당신이 필요합니다.

“빛을 내게 하면 무의식적으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한다.”라고 넬슨 만델라가 말했습니다.

결국, 이게 삶의 전부일까요?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두려움에 인질로 잡히지 않았던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인종 차별 주의는 근절될 것입니다. 가난은 근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욕적인 자선 단체와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는 액션 테이킹 드리머의 세계를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인간의 여정을 받아들이고, 오늘날 사랑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매일 걸그룹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